

캄보디아 2021: 백신 정치와 체제 면역*

정 연 식**

국문초록

2021년 캄보디아는 강력한 방역 정책과 다양한 경제 지원책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 특히 충분한 백신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며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해 연내에 5세 이상 전체 인구의 99%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성과를 올렸다. 캄보디아 권위주의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장치를 구축한 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저항 세력은 내분으로 인해 동력마저 약화되었다. 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지만 외부 환경에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고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에는 중국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도는 향후 막대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캄보디아, 코로나19, 백신, 훈 센, 캄보디아인민당, 권위주의체제, 중국-캄보디아 관계

* 이 논문은 2021-2022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freedom@changwon.ac.kr

I. 머리말

2017년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n National Rescue Party, 이하 구국당) 해산과 2018년 총선 압승으로 패권적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한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이하 인민당) 정부는 2020년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COVID-19)의 이중 위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충격과 피해 속에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함몰됨으로써 정치적 퇴행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었다(정연식 2021; Ciorciari 2021). 이중의 위기 속에서 국가 경제는 피해를 입었지만 인민당 정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다 구국당 강제 해산에 수반되는 비용을 얹어 치른 것이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EU의 제재가 미미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지만, 코로나19 충격이 너무 커서 전혀 아무런 충격도 주지 못했다. EBA (Everything But Arms, 무관세특혜) 지위 회복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는 훈 센(Hun Sen) 총리의 선언적 발언은 캄보디아 권위주의체제의 승전고였다(Phnom Penh Post [이하 PPP] 2021/05/21).

그러나 2021년의 코로나19 위기는 크게 증폭되어 캄보디아를 강타했다. 1년간 12만여 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지역이 봉쇄되고 공장이 멈췄고 앙코르와트(Angkor Wat)에서 관광객이 사라졌다. 2021년의 비상한 위난에 캄보디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는지, 어떤 피해와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순으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도록 하겠다.

II. 정치

1. 코로나19와 백신 정치

캄보디아는 2020년 코로나19 확진자 378명, 사망자는 한 명도 없는 방역 모범국가였다. 그러나 2월 대규모 지역감염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는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캄보디아를 강타했고 정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4월 1일을 기점으로 프놈펜에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시했다. 이어서 15일간 지방 간 이동도 완전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강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놈펜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15일부터 프놈펜 전역과 인접한 꾀달(Kandal) 주의 따끄마오(Takmao) 지역을 봉쇄했다(PPP 2021/0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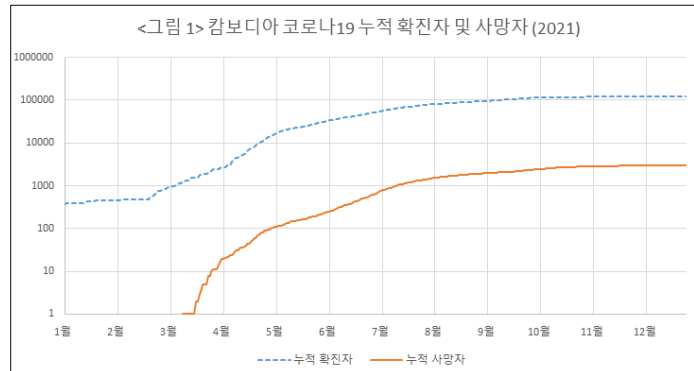
지역 봉쇄는 지역 내 주민들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외부 출입이 금지되며, 특히 고위험 적색지대에서는 집 밖으로 나올 수조차 없는 강력 통제 정책으로서 정부가 봉쇄지역 내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생산활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해야 하는 고도의 행정 및 재정 역량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봉쇄 조치가 취해진 프놈펜과 꾀달 주에는 의류봉제 공장이 집중되어 있어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만 노동자 1,600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34개의 공장이 폐쇄된 상황이어서 지역 봉쇄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PPP 2021/04/22). 정부는 적색지대 내 20만 가구에 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했고, 손실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 봉쇄지역 내 거주하는 노동자 40만 명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690개의 공장이 정상적인 조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PP 2021/04/27). 정부는 봉쇄지역 빈곤층 주민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가족 수에 따라 40달러에서 75달러까지 지급하고, 봉쇄지역 내 확진자에 40달러, 사망자 가족에 75달러, 공장 노동자에 40달러를 지급하는 지원책을 실시하여 6월까지 27만여 명의 봉쇄지역 노동자들에게 1,100만 달러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다(PPP 2021/06/22). 이후 정부는 봉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쇄지역을 세분화하여 봉쇄지역 규모를 줄여나갔고 최종적으로는 가구 단위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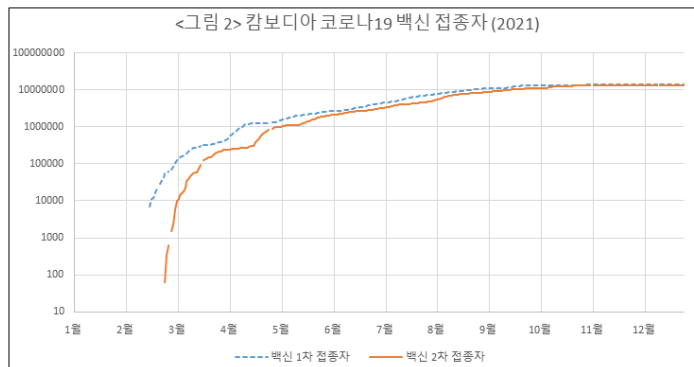
캄보디아 정부는 연말까지 이처럼 지역감염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을 일정 기간 봉쇄하고 피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감염 확산에 대응했다.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며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에는 베트남과 태국 국경을 봉쇄하고 2주간 전국에 통행금지령을 발동해 바이러스 유입과 전파를 차단했다(PPP 2021/07/29). 8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9월에는 프놈펜의 각급 학교는 등교를 재개했고 뽀쑸 벤(Pchum Ben) 축제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축제 시작 직후 확진자가 나오자 이틀 뒤 정부는 축제 행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PPP 2021/09/24). 이후 10월 들어서도 감염이 지속되자 정부는 11월로 예정된 물축제마저 취소했다(Khmer Times [이하 KT] 2021/10/11).

일반 재난지원금은 2020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직자 지원금과 취약 계층 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되었다. 일시적 실직을 포함해 실직자는 3개월간 정부가 월 40달러를 지급하고 고용자가 30달러를 지급해 총 70달러가 지원되는데, 2020년부터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2021년 12월까지 지급되었다(PPP 2021/10/30). 취약 계층 지원금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에 걸쳐 총 5억 달러가 지원되었다(PPP 2021/12/15). 이처럼 재난지원금과 피해지원금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이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되면서 5월에 정부는 모든 부처의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는 예산 조정을 단행했다(PPP

2021/05/06).



출처: <https://github.com/owid/covid-19-data/tree/master/public/data/vaccinations>



출처: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

인민당 정부가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것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된 백신 접종이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8월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감소해 안정세를 유지하게 된 것은 백신 접종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신 접종은 2월 7일 중국이 공여한 백신 60만 도스가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 2월 10일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산 백신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훈 센(Hun Sen) 총리의 장남 훈 마넷(Hun Manet) 장군을 필두로 우선 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고위 공무원과 가족, 의료인과 언론인, 그리고 경찰 등이 백신을 접종했다. 훈 센 총리는 백신을 확보해 접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롯이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가 맺은 결실임을 강조했다(KT 2021/02/10).

4월 지역감염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정부는 확진자 발생 지역을 봉쇄하는 고강도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4월 5일 41만여 명에 그쳤던 접종자 수는 봉쇄지역 내 적색지대 거주자들을 우선 접종하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 8월 28일 9백만 명이 접종하는 성과를 올렸다. 6월에 2차 접종이 시작되었고 8월부터는 12세-17세 청소년, 이어서 9월에는 6세-11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확대되었다. 8월 태국으로부터 델타 변이가 유입되자 접경 지역 7개 주의 우선 접종 대상자 48만 명에게 3차 접종을 개시했고, 9월에는 프놈펜 지역에서도 3차 접종을 시작했다(PPP 2021/09/06). 8월 말 기준 캄보디아가 확보한 백신 3천130만 도스 중 중국산 백신이 2천30만 도스였다. 따라서 훈 센 총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백신 접종 성과는 전적으로 중국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KT 2021/08/20).

9월 27일 기준 접종 목표 1천만 명의 98.87%가 접종을 완료했다(PPP 2021/09/29). 9월에 들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며 백신 효과를 확연히 부각시켰다. 정부는 3차 접종 캠페인과 함께 백신패스제를 도입하고 모든 교육 시설, 시장을 포함한 모든 상업 시설 입장할 때 백신카드나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PPP 2021/10/12). 아울러 11월 1일을 기점으로 각급 학교 전면 등교 조치와 함께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고, 관광객 입국 허용 일정을 앞당겨 1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PPP 2021/11/01). 정부는 12월 12일 기준 총 4천만 도스 확보해 1,300만 명, 전체 인구 1,600만 명의 88.76%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발표했고, 군인, 의료진 등 우선 접종 대상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즉 2차 부스터 샷을 접종할 계획임을 밝혔다(PPP 2021/12/26). 12월 20일 훈 센 총리는 2월에 시작한 지역감염이 마침내 종식되었음을 선언했다(KT 2021/12/20). 12월 31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20,49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012명으로 집계되었다.

비록 2021년 한 해 12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3천여 명이 사망했지만, 캄보디아의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은 저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백신이었고,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산 백신이 적기에 원활히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훈 센 총리가 중국을 선택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맺은 결실이라며 누차 강조했다듯이 인민당 정부는 중국산 백신으로 정부 역량을 입증하는 한편 친중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훈 센 총리가 중국에 더해 백신 성공 요인으로 꼽는 것은 소위 ‘개화전략’이다. 마치 꽃봉오리가 열리듯이 확진자가 많았던 프놈펜과 견달 지역을 우선적으로 접종 완료한 후 프놈펜과 인접한 위험군 지역 5개 주로 접종을 확대하고 이어서 나머지 지역으로 접종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인민당 정부의 능력과 성과를 과시하는 레토릭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비상한 시국은 결과적으로 인민당 정부의 역량과 성과를 근거로 권위주의체제를 합리화하는 명분을 제공했고 인민당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해 비판과 반대의 여지를 제거하고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백신으로 권위주의체제를 면역한 셈

이다.

2. 경쟁 없는 장기집권

2021년 인민당 정부는 당면한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총선의 압승을 위해 경쟁자가 등장할 공간을 원천 봉쇄하는 데 주력했다. 인민당으로서는 안정적인 권력 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2017년 경쟁자를 제거하는 모험을 감행했고, 이제는 그 비용까지 다 치른 티라 경쟁자를 다시 불러들일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압력이 작동해 2023년 총선 전 경쟁체제가 복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1월 14일 삼 랑시(Sam Rainsy)와 무 속후어(Mu Sochua)를 비롯한 구국당 정치인과 활동가 60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2019년 말 삼 랑시가 귀국 시도한 것을 내란음모로 기소한 재판이다(PPP 2021/01/14).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3월 1일 결심공판은 삼 랑시에게 징역 25년형, 벌금 1,800만 리엘과 함께 시민권 박탈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무 속후어를 포함해 함께 기소된 인사들은 모두 20년에서 22년에 이르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PPP 2021/03/01). 어떤 경우에도 2023년 총선에 삼 랑시와 구국당 인사들이 등장할 수 없도록 못을 박는 판결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항상 사법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PPP 2021/01/10). 켄 레이(Kem Ley) 피살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비판을 이끌어온 롱 쓰훈(Rong Chhun)은 2020년 7월에 선동 혐의로 구속된 후 1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롱 쓰훈의 석방 요구 시위를 주도한 활동가 2명과 전 구국당 소속 의원 3명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PPP 2021/10/27). 정부의 감시와 탄압은 전방위적이다. 최근 종교부는 파업이나 시위에 불교 승려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령

을 제정 공포했고(PPP 2021/12/22), 정보부는 가짜뉴스 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온라인 매체를 검열하고 있다(PPP 2021/09/07). 유명 래퍼 끼어 소꾼(Kea Sokun)은 정부의 검열에 걸려 징역을 살고 있다. 2020년에 정부의 인권 탄압, 중국의 영향력, 베트남 국경 문제 등을 비판한 노랫말이 문제가 되어 선동 혐의로 체포된 후 18개월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Walker 2021). 9월에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17세 청소년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 청소년은 수감 중인 전 구국당 인사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SNS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공무원을 모욕한 혐의로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어 복역중이었다(PPP 2021/09/04). 그러나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캄보디아 정부는 형 집행정지로 소년을 석방했다(PPP 2021/11/03). 이어서 2020년 중국대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주도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활동가들이 전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룡 쯔훈마저 보석으로 풀려났다(PPP 2021/11/24). 캄보디아의 권위주의체제가 정교한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은 이처럼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비판 세력을 제압하고 재갈을 물리는 한편 그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임계점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Morgenbesser 2020).

저항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캄보디아구국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껌 소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국외 망명 중이고, 마땅한 저항 전략도 없는 데다 내부 분열의 조짐마저 보이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1월 초 무 속후어 구국당 부대표가 구체적인 항공편 일정까지 공개하며 귀국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11월 삼 랑시와 함께 귀국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1년여 만에 다시 귀국을 시도하는 셈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여권은 말소되었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 불가 방침을 밝힌 터라 정상적인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귀국을 기대하

는 이는 많지 않았고, 심지어 귀국 의지도 없으면서 별이는 정치적 기만으로 보는 견해도 많았다. 실제로 무 속후어 일행은 귀국 예정일에 항공기 탑승조차 하지 못했고 여권과 비자 발급이 모두 거부되어 항공기 탑승에 실패했다는 짤막한 발표가 전부였다(PPP 2021/01/17).

껌 소카(Kem Sokha) 전 구국당 대표는 신속하게 진행된 삼 랑시 공판과 달리 코로나19를 구실로 공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변함이 없었다. 껌 소카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택연금 조건을 깨고 지방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외국 대사들과 회동하는 일정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며 정부의 반응을 시험했다. 특히 EU 대사, 미국 대사와의 만남(PPP 2021/12/02)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동원해보려는 의지와 희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EU와 미국의 제재에 따른 비용을 이미 치른 마당에 장기집권을 꾀하는 인민당 정부로서는 껌 소카를 석방해 저항 세력이 결집할 여지를 남길 이유가 전혀 없다. 인민당 정부가 껌 소카의 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그와 같은 느슨한 통제가 장기간 껌 소카를 가택연금 상태로 묶어둘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껌 소카는 공개 메시지를 통해 삼 랑시가 주도해온 활동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공개적으로 삼랑시의 행보를 비판하고 이제 더이상 하나가 아니라며 결별을 선언했다(PPP 2021/09/06). 껌 소카의 선언 이후 구국당 지지자들도 분열하며 대립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여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삼 랑시의 호소에 대응해 껌 소카는 함께 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천명했다(PPP 2021/12/02).

삼 랑시는 2019년 귀국 시도가 실패한 후 2년째 SNS 활동에만 매달렸는데 정작 껌 소카를 비롯한 국내 구국당 인사들, 그리고 지지자들과의 소통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서 민주

주의를 복원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 논의 대신에 때로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들로 SNS를 채우며 저항의 동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예컨대, 4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대규모로 확산하는 시점에 시행된 프놈펜 일부 지역 봉쇄 조치를 두고 삼 랑시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 집에 있지 말고 나가자”며 그야말로 주민들을 ‘선동’하며 지지자들의 비판을 자초했다(PPP 2021/04/28). 12월에는 훈 마넛 장군의 학력을 다시 문제삼고 나섰다. 삼 랑시는 2019년에 훈 마넛의 미국 웨스트포인트 졸업은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웨스트포인트에서 훈 마넛의 졸업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침묵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훈 마넛의 웨스트포인트 졸업은 외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자녀들에게 외교적 차원에서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수여되는 일종의 2등급 졸업이라고 비난한 것이다(PPP 2021/12/27). 이와 같은 주장은 설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증 불가능한 주장이어서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권위가 손상될 뿐이다.

이와 같은 구심점 부재와 원심적 분열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내에 남아있는 전 구국당 인사들에게는 정치활동 금지에 묶여 있거나 사면복권을 신청해 군소 정당 창당에 나서는 두 가지 선택지만이 남게 되었다. 전 구국당 부대표였던 뿔 함(Pol Ham)과 우 찐롯(Ou Chanroth) 전 의원을 포함해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 118명 중 24명이 사면을 신청해 복권되었는데(KT 2021/05/18),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사면을 신청하는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면된 구국당 인사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재결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분오열은 이들이 사면복권의 조건을 이행한 결과일 뿐이고, 그렇게 형성된 다수의 군소 정당은 집권당의 압승과 선거의 형식적 정통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된다. 그 다수의 군소 정당들 중에는 1981년 노로돔 시하누크

(Norodom Sihanouk) 전 국왕이 창당해 1993년 첫 총선에서 승리했던 훈신뻬(FUNCINPEC)이 있다. 11월 훈신뻬를 이끌어온 라나룻(Ranariddh) 왕자가 향년 77세로 운명했고, 아들인 짜끄라우트(Chakravuth) 왕자가 스러져가는 왕실 정당의 대표를 계승한다고 발표했다(PPP 2021/11/28).

캄보디아의 공고화된 권위주의체제는 이처럼 저항 세력의 힘이 분산된 상태에서 장기집권을 위한 장치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장치는 개헌을 통해 이중국적자는 총리, 상하원 의장, 헌법위원회 의장직을 수임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이 기발한 개헌은 우연히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의 보도에서 촉발되었다. 10월 3일 가디언이 판도라 보고서를 바탕으로 훈 센 총리에게 키프로스 여권이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 차원에서 즉각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가용 채널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항의했다. 가디언은 10월 6일 훈 센 총리에 관한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사를 수정했다(The Guardian 2021/10/06). 그러나 사건의 결말은 예기치 않게도 이중국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헌으로 연결되었다. 11월 4일 국왕이 개헌을 공포하였으니 개헌에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셈이다(PPP 2021/11/04). 가디언의 오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훈 센 총리가 개헌을 속전속결 관철함으로써 자신이 이중국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삼 랑시를 비롯한 도전자들이 결코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잠금장치를 만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구국당 인사들의 다수가 이중국적이어서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들은 총리를 비롯한 3부의 수장이 될 수 없다.

장기집권을 위한 또 하나의 장치는 총리 취임 연령을 72세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역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삼 랑시의 요구를 살짝 비틀어 변용한 것이다. 먼저 10월에 삼 랑시가 총리의 연령을 70세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명백히 1952년생인

훈 센 총리가 71세가 되는 2023년 총선에서 총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훈 센 총리는 이 제안에서 영감을 얻은 듯 72세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PP 2021/12/29). 훈 센 총리는 다음 총선이 예정된 2023년에 71세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2028년까지 총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인 동시에 2028년 총선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훈 센 총리가 처음으로 은퇴를 거론한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때맞춰 훈 센 총리가 장남인 훈 마넷 장군이 총리직을 계승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자(PPP 2021/12/02) 12월 24일 인민당 중앙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훈 센 총리를 2023년 총선 총리 후보로 추대함과 동시에 훈 마넷 장군을 훈 센 총리의 은퇴 후 인민당의 총리 후보자로 지정했다(PPP 2021/12/26). 권력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을 놓은 셈이다.

Ⅲ. 경제

2021년 캄보디아 경제는 2020년의 -3.1% 성장을 딛고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연초에는 낙관론이 지배하면서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4%, 4.2%의 GDP 성장을 예상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9%까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월에 시작된 코로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지역 봉쇄 등의 통제 정책이 국제적인 여건 악화와 결합해 캄보디아 경제의 동력을 잠식했다. 6월에 들어 주요 기관들의 성장 예측은 1% 대로 수정되었고, 12월 현재 IMF와 ADB는 2021년 캄보디아의 GDP가 1.9% 성장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과 취약한 캄보디아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1.9% 성장도 상당한 성과

라 할 수 있지만 2020년 -3.1% 성장과 합산하면 2019년 GDP를 회복하지는 못한 수준이다.

캄보디아 경제는 건설, 관광, 봉제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먼저 제조업을 이끄는 봉제산업 실적부터 살펴보자. 봉제산업은 2020년 원자재 공급난과 EBA 지위 철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2021년을 시작했다(정연식 2021). 2020년 한 해에만 129개의 의류봉제공장이 폐업해 71,202명이 실직했고, 팬데믹 이전에 투자가 진행되어 신규로 설립된 공장들이 있었지만 23,208명을 고용하는 데 그쳐 실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10.2%나 감소했다(PPP 2021/01/12). 2021년 연초에는 이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코로나 지역감염에 의류공장들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공장이 봉쇄되고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가 장기간 반복되었다. 5월 초 프놈펜과 깐달(Kandal) 지역 노동자 1,67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들이 속한 공장 206개가 가동을 중단했고 노동자 17,000명이 2주간 격리에 들어갔다(PPP 2021/05/22).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프놈펜과 인근 공장지대가 봉쇄되었고, 봉쇄지역 내 공장들은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단했다. 이와 같은 지역 봉쇄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상반기 의류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PPP 2021/06/17). 다행히 하반기에 들어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의류 수출은 9월 말 기준 전년도 동기 대비 11.4% 증가하는 수준으로 회복했다(PPP 2021/10/17). 이는 의류 수출이 2020년 10.2% 감소했던 터라 2019년 수출액을 회복한 셈인데 신발류 및 여행 관련 제품 수출이 반등하고 미얀마에서 생산 예정이었던 물량이 상당수 캄보디아로 발주됨에 따라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의류봉제산업은 2년 연속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 수출경제의 취약한 측면을 뚜렷이 부각시켰다.

그간의 산업 다각화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해 봉제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수출액은 2019년 전체 수출액의 17.2%에서 2020년 26%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9월까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해 34억 달러에 달했다(PPP 2021/10/18). 비 봉제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수출품은 자전거와 가구류로서 특히 자전거 제조업이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캄보디아는 2017년 이후 EU 시장 자전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캄보디아산 자전거는 2020년 전년도 대비 27% 증가한 6억 달러를 수출했고, 2021년에도 8월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25% 증가한 4억1,700만 달러를 수출해 연말까지 7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PPP 2021/09/07).

캄보디아의 전체 수출액은 2020년 172억 달러로 2019년 대비 16.7% 성장했지만(PPP 2021/04/05), 2021년 상반기에는 82억 달러를 수출해 하반기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연 수출액은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KT 2021/07/21). 주목할 만한 점은 최대 수출시장이 EU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EU의 EBA 부분 철회 제재와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혜택이 교차하면서 2020년 기준 EU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2억 달러를 기록해 17.7% 감소했고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9.5%가 성장해 52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여행 관련 제품에 GSP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급증했고 2021년에도 9월까지 62억 달러를 수출해 전년도 대비 28%의 큰 성장세를 이어갔다(PPP 2021/11/07). EU 다음으로 중국, 일본, 영국, 캐나다 순이며 한국은 태국과 베트남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한국과의 교역액은 2019년 10억 달러에서 2020년 8억8천만 달러로 18% 감소했지만 2021년은 11월까지 캄보디아가 3억9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5억6천만 달러를 수입해 2020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8억6,9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한국무역협회). 한국과의 FTA는 2월 양국 간 협상이 종료된 후 10월 26일 협정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한-캄보디아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더불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1월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될 예정이어서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9억2,2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2019년 투자액 2억1,300만 달러 대비 4배 증가한 규모다(매일경제 2021/09/08). 1994년 이후 2019년까지 FDI 총액 859억 달러 중 중국이 21.81%로 1위, 한국은 6.16%로 2위 투자국이다(PPP 2021/01/07). 인도적 지원도 계속 유지되었다. 한국은 2021년 캄보디아에 유무상을 합해 ODA 1,004억 원을 지원했고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35만 달러에 상당하는 코로나 진단 장비를 제공했다(PPP 2021/0420),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뢰 제거 사업에 1천만 달러를 공여해 캄보디아 정부의 2025년 ‘지뢰 없는 캄보디아’ 만들기 사업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PPP 2021/03/16). 2020년까지 한국이 캄보디아에 공여한 ODA 총액은 9억1,600만 달러로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이어 2위 수원국이다(매일경제 2021/09/08).

2019년 기준 전체 GDP의 18.7%를 차지했던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2020년 한 해에만 50억 달러 손실을 기록하며 -36% 성장을 기록했다(KT 2021/03/17). 2020년 프놈펜, 시엠리엡(Siem Reap),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3대 국제공항 이용객은 전년 대비 81% 감소해 217만 명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2021년 들어 더욱 감소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5만여 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엠리엡 공항은 정기 항공편 99%가 취소되어 해당 지역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태에 이르렀다(PPP 2021/09/06). 2021년 초 이미 3천여 개의 관련 업체들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4월 초 관광산업 복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지만(PPP 2021/04/08), 이후 지역감염 확산과 함께 관광산업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였다.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줄어 2019년 61억 달러에서 2020년 39억 달러로 감소했고 2021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PPP 2021/04/08). 캄보디아 정부는 빈사 상태에 빠진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11월 1일 관광지를 전면 개방하고 관광객은 입국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격리 기간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팬데믹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은 최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산업으로 부상하면서 2019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7%에 달했다. 그러나 건설 부문 투자가 집중되었던 시하누크빌 지역은 이미 2020년 카지노가 폐쇄되고 중국인 20만 명이 귀국함으로써 부동산 수요가 증발했고, 2021년 가치는 급락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마저 실종되었다(정연식 2021). 수도 프놈펜 지역은 부동산 수요가 정체되고 콘도미니엄 중심으로 신규 물량이 추가되었지만, 고급 주택 임대료만 소폭으로 하락했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PPP 2021/07/07). 건설 및 부동산 부문 투자는 2021년 9월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21% 감소해 46억5,700만 달러에 그쳤는데, 2020년 투자액 78억 달러는 2019년 투자액 114억 달러에서 32%나 감소한 것이어서 올 연말까지 투자가 추가되더라도 2019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PPP 2021/12/20). 게다가 2022년 중국 정부의 위안화 반출 제한 기조에 따라 부동산 및 건설 부문 투자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자본의 투자마저 대폭 감소한다면 경제는 핵심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기대 심리 붕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해외송금도 자연스레 감소했다. 2019년 약 12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28억 달러를 국내로 송금했는데, 2020년 송금액은 17%나 감소해 22억 달러에 그친 데다(KT 2021/06/03) 2021년 총 26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귀국한 것으로 집계되어 해외송금액은 최소 20% 이상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PPP 2021/12/21).

2020년 190달러였던 최저임금은 2021년 EBA 지위 부분철회와 코로나19로 야기된 이중위기 상황을 고려해 192달러로 책정되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92달러 동결에 합의했고, 훈 센 총리가 추가 인상분을 결정하는 관례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2달러를 더한 194달러로 책정되었다(PPP 2021/09/28).

IV. 국제관계

2021년 코로나 시국은 캄보디아의 국제관계에서도 친중 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백신 외교는 2월에 무상 공여한 백신 100만 도스 도착을 시작으로 9월까지 무상 백신 430만 도스를 포함해 총 3,000만 도스를 공급해 차질 없이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가 5월 최악의 상황일 때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무한 지원을 약속하고 캄보디아와의 특별한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중국산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캄보디아의 백신 접종률이 싱가포르를 제외한 역내 국가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각별한 중국과의 관계가 뚜렷이 부각되었다. 6월 초 캄보디아 20% 이상 접종일 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7.6%와 6.6%, 타이와 필리핀이 각 4.6%와 4.2%, 베트남은 겨우 1% 수준에 그쳤다. 9월 들어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길 즈음 훈 센 총리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중국이 보여준 ‘불변의 우정’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PPP 2021/09/06). 일주일 뒤에는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직접 참석하는 국립경기장 ‘양도식’이 열렸다. 2023년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에 대비해 1억5천만 달러 전액 중국 지원으로 건설된 새 경기장은 캄보디아에 양도되어 ‘강철보다 더 단단한’ 양국관계의 상징물이 되었다. 싹삭 소콘(Prak Sokhon) 외무장관은 홍콩과 신장 등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 캄보디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발원 규명에 반대한다는 성명으로 중국의 선물에 답례했다(PPP 2021/09/13).

중국은 캄보디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특히 2021년 캄보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백신을 우선 제공함으로써 인민당 정부가 그간의 친중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난을 일소하며 친중 정책의 타당성을 과시할 수 있게 뒷받침했다. 훈 센 총리는 여러 차례 “중국이 아니면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겠는가”를 반복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했다(PPP 2021/05/21). 그러나 양국 간 ‘불변의 우정’은 국제사회에서 캄보디아의 외교적 입지와 운신의 폭을 좁히기 마련이다. 캄보디아는 그간 아세안 내에서 중국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의 주역이 되어왔고, 의장국이 되는 2022년에는 그 파장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Loughlin 2021). 사실 아세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는 데 실패했던 때도 2012년 캄보디아가 의장국이었을 때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였다.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의 중국 편들기에 더해 중국해군의 리엄(Ream) 기지¹⁾ 사용 의혹이

1) 시하누크빌(Sihanoukville) 동남쪽 직선거리로 약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베트남 푸꾸옥(Phú Quốc) 섬과의 거리는 약 30Km이다.

현실로 나타난다면 아세안은 심각한 균열을 겪을 수 있다.

중국 덕분에 코로나 백신에 여유가 생긴 캄보디아는 백신 외교로 인접국들과의 우호 증진에 나섰다. 9월에는 라오스에 20만 도스를 기부했고(PPP 2021/09/28), 10월에는 베트남에도 20만 도스를 기부했다(PPP 2021/10/27). 11월 국내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는 판캅 위파반(Phankham Viphavanh) 라오스 총리 일행이 훈 센 총리의 초청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라오스에 현금 1천3백만 달러와 함께 백신 50만 도스를 추가로 기부했다(PPP 2021/11/30). 위파반 총리의 방문은 향후 캄보디아의 행보로 야기될 수 있는 역내 긴장 상황에서 라오스의 지지를 담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영해 분쟁 당사자이자 과거 후견국의 위치에 있었던 베트남과의 관계는 캄보디아의 친중 행보 보폭에 따라 크게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캄보디아의 친중 정책에 부과되는 최대 비용은 점증하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과 그에 따른 미국의 압박이다. 미국의 캄보디아 전략은 강경 제재 입장에서 2020년 유화적인 접근으로 선회했지만, 양국 간 관계는 교착 상태에 머물렀다(정연식 2021). 2021년 바이든 정부는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Wendy Sherman)을 보내 관계 개선 가능성을 재차 타진했다. 6월 1일 셔먼 차관은 훈 센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핵심 쟁점들을 직접 거론하며 캄보디아의 변화를 요구했다. 미국과 캄보디아 간 가장 첨예한 쟁점은 중국해군의 리엄(Ream) 항만 주둔 혹은 독점적 사용권 의혹으로서 미국은 2018년부터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2020년에는 캄보디아가 중국에 리엄 기지 30년 사용권을 담보하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Suciu 2021). 최근 기지 건축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셔먼 차관보 방문 직전에 완공되자 미국 국무부는 리엄 기지 건설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으며, 기지에는 중국 전용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

했다(Reuters 2021/06/02). 셔먼 차관은 미국의 지원으로 2012년에 건립한 기지 내 건물 두 채를 사전통지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해군의 리엄 기지 사용이 초래할 지역 안보 위기와 그로 인해 야기될 관계 경색을 강조한 후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취해줄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했다(Strangio 2021).

훈 센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비밀협정이 사실일 경우 인정하기도 어렵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기에 셔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미국 대사관 주재 무관의 리엄 기지 방문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갈무리했다. 미국 대사관 무관은 6월 11일 기자들과 함께 리엄 기지를 방문했는데 방문 장소를 제한하고 기지 내 일부 영역만 공개하는 데 대해 항의하며 세 시간 만에 방문을 중단했다. 훈 센 정부는 리엄 기지 건설에 중국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캄보디아는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중국을 포함해 우호적 국가라면 누구든지 리엄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PPP 2021/06/13). 캄보디아로서는 오히려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의 사용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사건의 폭발력을 사전에 감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셔먼 차관은 리엄 기지 문제 외에도 훈 센 총리에게 직접 캄보디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2023년 총선 전 민주주의를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심지어 반나절의 짧은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셔먼 차관은 껌 소카를 만나 훈 센 정부를 압박했다(PPP 2021/06/02).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복원은 권력 독점을 위해 EU의 경제 제재도 마다하지 않는 인민당 정부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며, 따라서 목적으로서도 달성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다. 셔먼 차관은 훈 센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온 채무 6억 달러) 상

환을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훈 센 총리는 채무의 70%를 교육과 보건 부문 개발협력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액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훈 센 총리의 여유 있는 태도가 암시하는 바는 이 제안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캄보디아의 친중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서먼 방문 직후 동남아시아에 백신 7백만 도스 지원을 결정하면서 지원 대상국에서 캄보디아를 제외했다(Reuters 2021/06/08). 이러한 결정은 서먼 방문 전 캄보디아가 백신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서 미국이 캄보디아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이미 중국이 제공한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 캄보디아가 친중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역효과를 낼 뿐이다. 미국은 이어서 웨스트포인트 아카데미를 포함한 미국의 사관학교 대상 캄보디아 학생 유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이 가능하지만 비용은 캄보디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Reuters 2020/07/01). 9월에는 캄보디아 제재 법안인 2021캄보디아민주주의법(Cambodia Democracy Act 2021)이 하원을 통과해 12월 현재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상원에서 가결되어도 제재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6일 미국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훈 센 총리는 1994년 무기체계를 미국형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하게 되었다며 오히려 미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란 듯이 즉각 미국산 무기를 사용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PPP 2021/12/12). 서먼 국무차관의 캄보디아 방문은 뚜렷한 성과 없

2) 1970년대 론 놀(Lon Nol)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2억7천8백만 달러 차관을 얻었는데, 미국은 이자를 계산해 2017년 5억 달러, 2020년 6억 달러를 상환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미국의 전략 부재를 노출했고, 사후 미국이 취한 일련의 보복성 제재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아 역설적으로 미국은 캄보디아의 경중 궤도를 수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다(Hutt 2021).

V. 맺음말

2020년 EU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의 이중 위기를 헤쳐나온 캄보디아는 2021년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이라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봉쇄와 같은 가장 강력한 통제 정책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감염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충분한 백신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며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캄보디아 경제의 중심 산업인 관광과 건설 부문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확대 재정을 통해 피해 산업과 주민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양책을 집행하며 경제를 지탱한 결과 전체 GDP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성과주의 논리에 기초하는 캄보디아의 권위주의체제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비교적 양호한 성적으로 방어하며 2년 연속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체제를 유지하는 또 다른 수단은 통제와 억압이다. 캄보디아의 권위주의체제는 사법 폭력을 통해 저항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인민당은 내친김에 훈 센 총리의 장남 훈 마넛 장군을 총리 후계자로 지정해 장기집권까지 준비했다. 반면 구 국당 지도자들이 이끄는 저항 세력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제약에 더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전략 부재와 원심적 분열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저항의 동력을 잃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하는 제재와 압

력도 수단과 효과가 모두 소진되어 캄보디아의 정치적 퇴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중국의 무한 지원은 캄보디아의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다. 중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의존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인민당 정부의 최대 업적인 백신 접종 성과는 전적으로 중국의 각별한 지원에 힘입은 것이어서 양국관계는 그야말로 ‘강철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다. 만약 그 특별한 양국관계가 야기한 중국의 리엄 기지 사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 안보에 심대한 파장을 촉발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아세안의 균열, 심지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2년 중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를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 정연식. 2021. “캄보디아 2020: 이중위기와 권위주의체제의 강화.” 『동남아시아연구』 31(2): 77-106.
- 한국무역협회. 2021.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1.12.29.)
- ABD. <<https://www.adb.org/countries/cambodia/economy>>
- Ciorciari, John D. 2021. “Cambodia in 2020: Preventing a Color Revolution.” *Asian Survey* 61(1): 123-129.
- Harding, Luke and Helena Smith. 2021. “Law firm founded by Cypriot president accused of hiding assets of Russian exile.”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news/2021/oct/03/law-firm-founded-by-cypriot-president-accused-of-hiding-assets-of-russian-exile>> (검색일: 2021.10.8.)
- Hutt, David. 2021. “China’s hold on Cambodia hard for Biden to break.” *Asia Times*. <<https://asiatimes.com/2021/06/chinas-hold-on-cambodia-hard-for-biden-to-break/>> (검색일: 2021. 6.13.)
- IMF. <<https://www.imf.org/en/Countries/KHM>>
- Khmer Times*. <<https://www.khmertimeskh.com/>>
- Loughlin, Neil. 2021. “Chinese linkage, leverage, and Cambodia’s transition to hegemonic authoritarianism.” *Democratization*. 28(4): 840-857.
- Morgenbesser, Lee. 2020. *The Rise of Sophisticated Authoritarianism in South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nom Penh Post*. <<https://www.phnompenhpost.com/>>

Reuters. <<https://www.reuters.com/>>

Strangio, Sebastian. 2021. "US Official Warns Cambodia Over China Ties, Human Rights."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06/us-official-warns-cambodia-over-china-ties-human-rights/>> (검색일: 2021.6.12)

Suciu, Peter. 2021. "Does the Chinese Navy Want a Base in Cambodia?"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does-chinese-navy-want-base-cambodia-186984>> (검색일: 2021.6.12)

Walker, Joe. 2021. "American Rappers Are Lucky: Cambodian Rapper Gets 18 Months for Dissing Government." *HIPHOP DX*. <<https://hiphopdx.com/news/id.62717/title.american-rappers-are-lucky-cambodian-rapper-gets-18-months-for-dissing-government>> (검색일: 2021.6.17.)

(2022.01.10. 투고, 2022.01.27.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Abstract>

Cambodia in 2021: Politics of Vaccine and Immunized Authoritarianism

JEONG Yeonsik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21, Cambodia overcame the COVID-19 crisis by mobilizing strong quarantine policies and various economic support measures. In particular, it secured sufficient vaccine supplies in a timely manner and carried out vaccinations at a high speed, resulting in 99%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5 or older completing the second inoculation by the end of this year. Based on these achievements, the Cambodian authoritarian system has established a device for long-term power, while the resistance forces contracted by COVID-19 have weakened their power due to internal strife. The economy has shifted to positive growth, but it will tak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recover its high growth due to its economic structure vulnerabl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China's support played a major role in Cambodia's system maintenance and economic recovery, but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could lead to huge political and economic costs in the future.

Key Words: Cambodia, COVID-19, vaccines and immunization, Hun Sen, Cambodian People's Party, authoritarianism, Sino-Cambodia relations

